

大·中企 협력사 직접적 타격 불가피… “팔수록 손해” 우려

美, 총 1000종에 50% 관세

대미 수출 감소세… 7월 17% 급락
수출계약 취소 등 中企 줄도산 우려
트럼프 2기, 철강·겨냥 보호무역 공세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기계·자동차 부품부터 주방용품까지 생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615종에 더해 총 1000여 종이 50% 관세 대상이 됐다.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구조재 ▲산업·기계 부품 ▲운송수단·부품 ▲전자기기·가전제품 ▲생활소비재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대폭 확대하자, 기계·자동차 부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포함돼 국내 철강업계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뉴시스

엔진·터빈·굴착기·변압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철강 프레임이 들어간 가구, 세제·비누, 식칼·포크 같은 단순 생활용품까지다. 관

세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에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HD현대건설기계, 한화엔진,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의 2·3차 벤더와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율 관세 이후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의 마진율이 보통 10% 미만인데 50% 관세가 적용되면 팔수록 손해”라며 “사업장 폐업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는 54건으로 이 중 36건이 철강·금속 부문이었다. 한국산

열연강판, 강철 결속재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캐나다·영국·말레이시아 등도 새롭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보호무역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4% 줄었고, 6월에도 8%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6월 월평균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에는 2억 1000만 달러로 17% 가까이 급감하며 올해 들어 처음 월간 수출액이 3억 달러 선을 밑돌았다. 업계는 재고 소진 이후 고율 관세의 직접적 충격이 본격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체는 수출 계약이 취소·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 것이나 다름없어, 장기화될 경우 업계 전반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GM “휴가철 여름 바다·가을 산, SUV로 달려요”

액티언·토레스·무쏘EV 흥행 주도
내수·수출 성장세, 7월판매 9620대
친환경 신차 앞세운 SUV 명가 저력

KG모빌리티(이하 KGM)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 명가’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흑자를 달성한 KGM이 3분기 들어 기본 좋은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내수 시장에서 1년여 만에 르노코리아를 제치고 현대차·기아의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친환경 신차인 액티언 하이브리드와 토레스, 무쏘EV가 흥행을 이끌었다. 여름과 가을 가족여행지로 각광 받는 바다와 계곡, 캠핑 등 산악 지역 등에 최적화된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7월 내수 4456대와 수출 5164대를 포함해 총



KGM 토레스.

9620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 판매는 5.2% 늘어났고, 수출은 26.7% 증가했다. 르노코리아·한국GM과 달리 KGM은 지난달 내수와 수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동급 차량 대비 넓은 적재공간과 험로 주행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KGM의 주력 모델인 액티언과

트랙스는 강력한 주행 능력과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액티언의 파워트레인인 친환경 1.5L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과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결합해 일상 주행 및 근거리와 가까운 지역을 여행할 때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배기량 대비 동급 최대토크 28.6kg·m, 최고출력 170마력의 1.5터보 GDI 엔진은 최적의 조합과 튜닝으로 기존 엔진 대비 출발 시 가속 성능을 10% 향상했다. 또 익스텐션 플로팅 루프 라인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2열 헤드룸(1001mm)을 갖춰 뒷좌석 동승자에게 안락한 탑승 경험과 골프백 4개를 적재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는 EV, HEV, 엔진 구동 등 총 9가지 주행 모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 도심 주행

시 EV 모드로 94%(CVS-75 기준)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복합 연비와 도심 연비는 20인치 휠 기준 각각 15.0km/L 및 15.6km/L이다.

토레스는 엔트리 모델인 T5부터 12.3인치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주행시 다양한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플로팅 타입의 뉴 디자인 센터 콘솔은 동반석과의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수납공간 효율을 높였다. 더 뉴 토레스 밴은 2인승 SUV로 최대 1462L의 적재 공간에 최대 중량 300kg을 실을 수 있다.

KGM의 대표 픽업트럭 ‘무쏘스포츠&칸’도 다양한 활용성을 갖추고 있다. 무쏘 스포츠&칸은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지난 1월 두 가지 트림으로 재구성한 ‘2025 무쏘’ 라인업으로 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노블레스에 멀티존 음성인식 등 탑재

기아가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을 18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상품 개선 모델로 국내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상승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기아에 따르면 더 2026 카니발은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기본 트림부터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카니발이 하반기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아 카니발은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 4만 9680대로 국내 전체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에 ▲멀티존 음성인식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1열)을 기본 적용해 더욱 편리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며,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를 기본화해 외장 고급감을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 82종 유해물질 제거 정수기 선택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 출시

삼성전자가 국내 업계 최대 82종의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정수기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정수기 카운터탑’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직수관 ▲직수관 99.9% 자동살균 기능 ▲자동 잔수비율 기능 등을 갖춰 한층 더 깨끗한 물 제공과 손쉬운 제품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또 별도 공사없이 싱크대에 올려두고 바로 쓰는 가로 17cm 슬림한 사이즈의 카운터탑 타입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신제품은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공식 승인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에서 공식 인증받은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필터는 미세플라스틱부터 납·수은·크롬 등 유해 중금속, 마이크로시스틴 등 총 82종의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이는 국내 출시된 카운터탑 정수기 중 최다 수준이다.

직수관과 출수구에는 오염과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했다. 또한 ‘자동 잔수 비율’을 갖춰 별도의 방문 케어 없이도 손쉽게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정희준 기자 nauta@

삼성중공업

2.1조 LNG선 6척 수주

연간목표 49% 조기 달성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사 2곳으로부터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1조 4350억원에, 다른 오세아니아 선주사로부터는 LNG 운반선 2척을 7057억원에 각각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된 선박들은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48억 달러로,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절반(49%)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 달러 중 41억 달러(70%)를 수주했으며, 해양부문도 지난 7월 7억 달러 규모의 해양생산설비 예비작업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연말까지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1기를 추가 확보해 목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다수의 프로젝트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FLNG 신조 협상 상황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